

溫庭筠 자연시의 특징 분석

배 다니엘*

<目 次>

- I. 서론
- II. 溫庭筠 자연시에 나타난 특징
 - 1. 자신의 비애감을 이입한 자연 묘사
 - 2. 지역의 풍경을 주목한 서술
 - 3. 수려한 시어 활용을 통한 우미한 정경묘사
 - 4. 청아한 자연 묘사 속에 발휘한 자연회귀 의식
- III. 결론

I. 서론

溫庭筠(812?-866)의 字는 飛卿이고 山西 并州人이다.¹⁾ 文才가 출중하여 과거시험장에서 팔짱을 여덟 번 끼며 ‘八韻詩’를 완성하였다 하여 ‘溫八叉’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권력자들을 비난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 과거에서 누차 낙방하는 등 평생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생을 살아갔고 관직은 國子助敎에 그쳤다. 과거낙방으로 인해 실의한 그는 귀족들의 자제들과 歌樓와 妓館

* 남서울대 중국학과 교수

1) 溫庭筠의 행적에 대해 辛文房, 『唐才子書』에는 “庭筠, 字飛卿, 舊名岐, 并州人.”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新唐書』 本傳에 “并州祁人”이라는 기록을 인용한 듯하다. 『舊唐書』 本傳에는 “太原人”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하여 傅璇琮, 『唐才子傳校箋』(北京: 中華書局, 2000. 2.)에는 별다른 고증이 없는 상황이다. 그의 시가를 보면 并州를 고향으로 언급한 경우가 별로 없고 江南이나 鄜縣(西安 杜陵, 그의 시 「商山早行」의 “그리움에 꿈에 본 고향 두릉의 모습, 연못 가득히 기러기 떼 떼 있었지.(因思杜陵夢, 鳧雁滿回塘.)” 언급 참조) 등이 고향으로 언급된 점을 볼 때 그의 행적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고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을 들락거리며 음주, 도박, 엽색을 즐긴 방탕한 면이 있지만²⁾ 한편으로 吳歌와 西曲, 樂府 등 음률에 정통하였고 艷情詩 창작에도 뛰어난 성취를 보인 인물이었다. 晚唐의 주요 시인으로 李商隱과 함께 '溫李'로 명칭되었고 李商隱, 段成式 등과 함께 文筆로 유명하여 나란히 '三十六體'로 불리어진 시인이다.³⁾

溫庭筠은 花間派의 비조로 艷詞를 계도한 인물로 유명하지만⁴⁾ 『溫飛卿集』과 『金奩集』 등의 저서에 약 310수에 달하는 시가를 남기며 梁陳 궁체시의 여풍을 계승한 시인으로서도 유명하다. 明代 高棟이 『唐詩品匯』에서 晚唐 시인을 논하면서 杜牧의 '豪縱'과 함께 溫庭筠의 '綺靡'를 함께 언급한 것처럼⁵⁾ 溫庭筠은 '綺靡'하고 '艷麗'한 풍격을 발휘한 시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또한 溫庭筠이 艷情詩詞 작가로 유명한 것과 연계된 시각이기도 하다. 물론 '綺靡'가 溫庭筠 시 풍격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창작풍격은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사실 '綺靡'라는 단어로 溫庭筠의 모든 시를 개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전하는 溫庭筠의 약 310수에 달하는 시가는 그가 살아간 다양한 인생의 편력을 반영한다. 우국, 영회, 회고, 애정, 기려와 여행, 자연풍경, 교유, 불도와 한거에 대한 갈망, 영물 등 다채로운 주제를 지향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과 풍격을 지니고 있는 그의 시에 대하여 '綺靡'라는 풍격용어로 귀결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처사이다. 특히 溫庭筠이 그의 시가 중에서 자연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艷情詩와는 확연히 다른 필치를 구사했음이

-
- 2) 歐陽脩, 『舊唐書』「列傳」卷190下:“(溫庭筠)公卿家無賴子弟裴誠、令狐綯之徒,相與蒔飲,酣醉終日,由是累年不第。” 등의 기록 참조.
- 3) 溫庭筠은 李商隱과 함께 '溫李'로 명칭되며 李商隱, 杜牧, 許渾 등과 함께 晚唐 四大詩人으로 거론되는 등 晚唐의 중요한 시인이며 晚唐 驕文에 있어서도 李商隱, 段成式 등과 함께 '三十六體'로 불리는 등 걸출한 재능을 지녔던 작가이다.
- 4) 溫庭筠은 花間派의 비조인 詞 작가로서 婉約派의 詞風을 개척하여 晚唐 西蜀의 詞人 韋莊과 함께 '溫韋'로 명칭되기도 한다. 晚唐 詞人들 중 최상으로 꼽히며 그의 詞 창작은 民間詞가 文人詞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기로도 작용했다. 『花間集』에 66수가 실려 있는 그의 詞의 詞風은 '婉麗', '含蘊', '濃艷' 등의 풍격을 지니고 있고 후대의 馮延巳, 周邦彥, 吳文英 등 宋代 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 5) 明代 高棟 『唐詩品匯』「總序」에 보면“(唐詩)降而開成以後,則有杜牧之豪縱,溫飛卿之綺靡.……此晚唐變態之極而遺風餘韻猶有存者焉.”라는 언급이 있어 溫庭筠 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綺靡'로 귀결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발견된다. 그가 자연을 찾아 자신의 소산한 정감을 표현하거나 청정한 의식세계를 추구한 부분을 보면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하고 백묘적인 표현을 가한 흔적이 농후하며 전반적으로 ‘淸淨’, ‘淸靜’, ‘淸雅’ 등 청담한 풍격을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⁶⁾ 이는 그만큼 그가 순수하고 소박한 심정으로 자연에 접근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詩史에서의 평가를 통해 溫庭筠에게 가해진 염정시인의 이미지는 그의 시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간 국내외에서 출간된 溫庭筠에 대한 연구논문이 주로 艷情詞 작가로서 조망한 것이 많고 시가의 경우 또한 愛情詩나 詠史詩를 중심으로 논의된 것이 주를 이룬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자연시를 비롯하여 溫庭筠의 시가에서 보이는 ‘淸雅’하고 ‘淡寂’한 풍격의 작품을 주목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⁷⁾ 본고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의 시가 중 자연을 묘사한 시를 중심으로 그 표현의 특색과 내용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溫庭筠의 시가에 대하여 다면적이고도 균형 잡힌 연구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하며 이 고찰을 통해 晚唐代 自然詩史에서 溫庭筠의 시가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6) 唐愛霞, 「飛卿亦有淸詩句-溫庭筠山水田園詩的淸拔曠遠之美」, (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 2009. 제11권.): “面對自然界的風光山水、田園景物時, 他最常用的是淸、閑、涼這些形容詞: …… 其實, 在溫庭筠的山水田園詩中, ‘淸’字隨處可見. …… ‘淸’字代表了溫庭筠山水田園詩的美學風貌.” 참조

7) 溫庭筠 연구에 대하여는 중국의 경우 張自華, 「溫庭筠詩歌研究」, (廣西師範大學 박사논문, 2011. 4.)를 비롯하여 詩와 詞 방면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溫庭筠의 자연시를 집중적으로 조망한 논문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 중 唐愛霞, 「飛卿亦有淸詩句-溫庭筠山水田園詩的淸拔曠遠之美」, (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 2009. 제11권) 논문은 溫庭筠의 자연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는 못했으나 溫庭筠 시가 지닌 ‘淸拔曠遠’한 측면을 주목한 연구로써 가치가 있다. 국내 논문의 경우 姜璋환, 「溫庭筠 詩 研究」(한국외대 박사논문, 2004), 임원빈, 「唐末 溫庭筠의 詠史懷古詩」(중국어문학논집 제67호, 2011. 4), 임원빈, 「溫庭筠 詩歌의 현실성」(중국연구 51권, 2011) 등이 있다. 그밖에 溫庭筠의 사를 연구한 논문으로 홍병혜, 「溫庭筠의 自由와 詞: 溫庭筠의 愛情詞를 中心으로」(외국문학연구 제17호, 2004. 8), 정명기, 「溫庭筠 詞의 오락 문학적 성격 연구」(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8), 이은영, 「溫庭筠의 ‘菩薩蠻’ 詞 연구」(전북대학교 석사논문, 2007), 김승희, 「溫庭筠 詞 研究: 애정표현을 중심으로」(전북대학교 석사논문, 2012) 등이 있다. 溫庭筠의 자연시를 전문으로 연구한 논문이 아직까지 출간되지 않은 것이다.

II. 溫庭筠 자연시에 나타난 특징

溫庭筠은 晚唐 진반기에 德宗, 順宗, 憲宗, 穆宗, 敬宗, 文宗, 武宗, 宣宗, 茲宗 등의 아홉 황제를 거치는 동안 평범치 않은 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내외외환으로 국력이 쇠미해가는 시기를 살면서 그의 삶 또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거나 干謁을 도모하는 등 권력에 대한 갈망을 소유하기도 하였고 봉건적 도덕질서에 대한 반항적 의식을 발휘하기도 했으며 유희가를 방문하며 풍류객의 기질을 발휘하거나 여성적 감수성을 고양하기도 하였고 자연산천을 찾아 감상에 젖거나 한거에 대한 갈망이나 귀향의식 등을 서사하기도 하였다. 그 중 자연을 노래한 시의 경우 자신이 겪은 현실의 어려움을 산수에 풀거나 자연 속에서 해탈을 도모한 작품, 지방을 여행하다 자연을 대하면서 느낀 감상을 담은 작품, 허정한 자연의식을 노래한 작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온정균이 추구하고 묘사한 자연 정경의 모습과 표현상의 특색을 살펴보기 위해 그의 자연시 작품들을 몇 가지 주제와 특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신의 비애감을 이입한 자연 묘사

‘官途’의 관점에서 바라본 溫庭筠의 일생은 온통 비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溫八叉’라는 별명처럼 뛰어난 문재를 지녔지만 여러 차례 응시한 과거에서 계속 낙방을 하였으며 大中 9년에 겨우 진사에 급제하였지만 그의 나이는 이미 56세에 이른 후였다. 이는 그와 동시기를 살았던 인물인 李商隱이 조년에 진사과에 급제했던 것보다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그 후 咸通 6년 65세에 이르러서야 낮은 직위인 國子監助教에 올랐으며 이듬해인 咸通 7년에 方城尉로 폄직되었다가 그 해에 사망하게 된다. 溫庭筠은 이처럼 회한을 안고 살아가던 자신의 신세와 적막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하여 자연묘사와 연결된 창작을 가한 바 있다. 세상에서 득의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경을 마주하면서 세속의 공명과 은거 사이에 발생하는 고민을 투영하기도 하였고 吳越, 西蜀, 塞北, 京洛, 荊襄, 江湘 등을 떠

돌며 나그네의 수심을 펼치기도 하였다. 나그네의 수심과 타향의 자연은 순탄치 못하고 복잡하게 생을 살았던 그의 개인적 삶을 더욱 처연하게 하는 배경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⁸⁾ 따라서 개인의 비감 어린 소산한 경지를 자연에 붙여 처연한 기운을 발하는 것이 그의 자연시에서 발견되는 일차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다.⁹⁾ 다음 예거하는 작품은 溫庭筠이 나그네 신세로 역참을 머물던 중 새벽녘에 오롯이 깨어 앉아 시상을 밝힌 작품이다.

「碧澗驛曉思」(벽간역에서 새벽에 생각하며)
 香燈伴殘夢 아름다운 등불 잔몽과 벗하는데
 楚國在天涯 초땅은 멀리 하늘 끝에 있구나
 月落子規歇 달 지고 두견새도 쉬는 이 새벽
 滿庭山杏花 온 정원과 산에는 산행화만 가득해라

본래 山西 太原이 고향인 溫庭筠이 고향과 멀리 떨어진 옛날 楚 땅 陸州 碧澗驛을 지나가면서 목도한 새벽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天涯'라는 표현으로 고향과 먼 이곳에 와있는 심정을 그렸고 평안치 못한 심정을 '殘夢'으로 표현했다. 맑은 새벽에 잔몽을 깨고 보니 달빛도 없고 새소리도 끊어져 사방이 고요하다. 온 산에 그득한 살구꽃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했는데 표현은 산뜻하고 고우나 내면에 담긴 뜻은 적막하고 처연하다.

다음도 행유하던 중에 느낀 수심을 노래한 시로 새벽녘에 길을 떠나면서 느낀 감회를 쓴 작품이 된다.

8) 나그네로 타향을 전전하며 심란한 심리를 지녔던 그의 내면을 대표하는 작으로 「客愁」와 같은 작품은 꼽을 수 있다. “버들 빛 바라보매 일어나는 나그네 시름, 날마다 봄을 따라 깊어가구나. 흔들리는 봄바람 속에서, 그 누가 혼란한 내 마음 속을 헤아려 줄까.(客愁看柳色, 日日逐春深, 蕩漾春風裏, 誰知歷亂心.)” 溫庭筠이 자신의 남다른 우수를 객려의 서정과 자연 경정의 결합을 통해 표현하기를 즐겨했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9) 그가 이처럼 자신의 적막한 심정을 투영하여 자연을 묘사한 작으로 「途中偶作」, 「江岸卽事」, 「商山早行」, 「送李億東歸」, 「送人東游」, 「西江上送漁父」, 「寄崔先生」, 「宿友人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溫庭筠 자연시에 대한 내용상의 분류는 시가에 담긴 자연묘사 부분을 감안한 필자의 자의적인 분류이며 이밖에 唐愛霞, 「飛卿亦有清詩句-溫庭筠山水田園詩的清拔曠遠之美」, (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 2009. 제11권.), 張自華, 「溫庭筠詩歌研究」, (廣西師範大學 박사논문, 2011. 4.) 등에서 가한 분류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商山早行』(상산에서 새벽길을 가며)

晨起動征鐸	새벽에 일어나 말방울 울리며 길 떠나니
客行悲故鄉	나그네 가는 길 고향은 언제나 그리워
鷄聲茅店月	객주집 위로 달 떠 있는데 닭울음소리 들리고
人迹板橋霜	서리 내린 널빤지 위에는 사람의 발자국
槲葉落山路	산길에 떡갈나무 잎 떨어지고
枳花明驛牆	역참 담장에는 탕자꽃이 환히 피었네
因思杜陵夢	그리움에 꿈에 본 고향 두릉의 모습
鳧雁滿回塘	연못 가득히 기러기 떼 떠 있었지

長安을 떠나 襄陽으로 가던 중 商山의 여관에서 새벽에 출발하며 쓴 작이다. 새벽 말방울 소리가 풍기는 맑은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이어 객지에서 길 가는 이의 쓸쓸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였다. 총 10개의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함연의 묘사는 인구에 회자되는 가구이다. 아직 달이지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닭울음소리와 일찍이 서리 내린 널빤지 위로 이미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는 형상은 시정각적인 효과와 함께 아련한 운치를 더한다. 각 명사 하나하나마다 개별적 함의를 가지면서 함께 조합하여 더욱 신묘한 경지를 드러내는 '언외의 흥취(言外之趣)'를 보이기도 있다. 제3연에서는 꽃과 나무로 여정의 주변정경을 묘사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落'과 '明'의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새벽의 청아한 기운과 나그네의 적막함을 함께 투영한 기법이 특히 시선을 끈다. 미연은 나그네가 그리워 고향의 모습으로 이 모습 속에 기러기를 등장시켜 떠나온 이의 비애와 귀향의 소망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맑고 신선한 시어를 활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엄격한 배치를 가해 여정의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해 낸 작품이라 하겠다.

객지를 떠도는 시인의 마음에 우수를 제공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계절의 흐름, 낮선 풍광,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회고 등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그네 신세로 있으면서 친우와 헤어지는 순간을 맞게 되면 그 수심의 정도가 더욱 극심하게 된다. 나그네 신세일 때 지은 여러 송별시¹⁰⁾ 중 다

10) 溫庭筠이 객지에서 친구와 송별하며 쓴 시로는 「送人東遊」, 「送李億東歸」, 「送陳暇之侯官兼簡李常侍」, 「送崔郎中赴幕」, 「送人南游」, 「送并州郭書記」, 「送淮陰孫令之宮」, 「送盧處士游

음 두 편의 시는 溫庭筠이 객지에서 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을 자연정경과 연계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贈少年」(소년에게)

江海相逢客恨多 강해에서 서로 만나 한 많은 나그네
 秋風落葉洞庭湖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동정호
 酒酣夜別淮陰市 한껏 술에 취해 회음 장터로 떠나는 이별의 밤
 月照高壘一曲歌 달빛 비치는 높은 보루에서 불러보는 노래 한 곡

시 전체의 분위기를 볼 때 시제의 '少年'은 '소년처럼 야망을 간직하고 있으되 득의하지 못한 젊은이'의 느낌을 갖게 하는 단어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지명인 '江海', '洞庭湖', '淮陰' 등은 거리상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이는 실제적인 지명으로 보기보다는 溫庭筠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신세로서 산만한 정신세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시가에 드러난 감정 역시 다양한 굴곡을 선보이고 있다. '나그네의 많은 한(客恨多)'과 '시절의 영락함(秋風落葉)'이 주는 쓸쓸함과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酒酣)' 노래하는 밤의 정취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를 읽고 난 뒤의 감흥은 오히려 맑고 한아하다. 객려의 한을 술과 노래로 씻어보려는 의도와 청아한 밤기운 속에서 감흥을 높이고자 한 시인의 서정이 깔끔한 여운을 지향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는 溫庭筠이 荊南幕에서 종사할 때인 咸通 2년 가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인데 가을 강가의 정경 속에 이별의 정을 효율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送人東游」(동쪽으로 가는 친구를 보내며)

荒戍落黃葉 황폐한 수자리에 누런 낙엽 떨어지고
 浩然離故關 그대는 호방하게 옛 관문을 떠나가네
 高風漢陽渡 세찬 가을바람 한양 나루터에 불어대고

吳越, 「送僧東游」, 「送襄州李中垂赴從事」, 「早春滬水送友人」, 「送李生歸舊居」, 「送北陽袁明府」, 「送渤海王子歸本國」 등이 있다. 이 시가에서도 자연을 대입하여 이별의 회한을 노래한 대목이 많으니 객지에서 이별하는 장면엔 자연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하겠다.

初日鄧山門	아침 해 형문산에서 솟아오른다
江上幾人在	강 가에는 단지 몇 사람만 있을 뿐
天涯孤棹還	저 하늘 끝으로 외로운 배 노 저어 돌아간다
何當重相見	어느 때 다시 만나
尊酒慰離顏	술 잔 들어 이별의 얼굴 위로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이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정경묘사를 통해 분위기가 자못 비장함을 느낄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가을 들판에서 아득히 떠나가는 우인과 함께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세찬 가을바람이다. 이별의 소슬한 정회가 소산한 자연정경 속에 녹아있는 인상을 받게 되며 한편으로 이러한 필법은 이별의 서글픈 감정이 지나치게 처량하게 표현됨을 절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염려한 시어를 활용한 溫庭筠의 다른 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청아한 풍격의 시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¹⁾

溫庭筠은 당시의 풍운아였던 李商隱보다도 관도가 불우한 생을 살았으며 중국에는 유락한 신세로 方城縣尉가 된 후 貶死한 인물이었다. 율회를 간직한 그였기에 방탕한 오락에 탐닉한 생을 살기도 했지만 남모를 우수와 고뇌를 안고 주변을 바라본 적도 많았음을 그의 시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내면에 잔존하던 그의 시름은 자연을 찾거나 자연 속에서 해탈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을 것이며 음률과 미감포착에 특히 뛰어났던 그의 시가 창작에 있어 중요한 창작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溫庭筠이 지닌 자연관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의 시가 창작수법이 어떻게 자연시에 연결되었을까하는 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심리적 요인인 것이다. 위에서 몇 수의 시를 예거하여 살펴본 溫庭筠의 자연시들은 자연 정경의 묘사 속에 기본적으로 '愁心'을 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艷詩를 창작한 시인이며 뛰어난 문재를 지니고 세상을 오만하게 바라보았던 시인의 이면에 잔재해있던 고독한 정회가 느껴지

11) 이 시는 비록 이별의 서정을 서사하고 있으나 시가에 담긴 기상은 초매한 면이 있다. 清代 紀昀은 『刪正二馮先生評閱才調集』에서 이 시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득하고 망망하며 높은 격조가 담겨 있다. 溫庭筠과 이상은은 모두 이러한 필력이 있기에 일체의 농염한 문사를 녹여버리면서도 억지로 해낸 흔적이 없는 것이다. (蒼蒼茫茫, 高調入云. 溫、李有此筆力, 故能熔鑄一切濃艷之詞, 無堆排之迹.)”라고 높은 평가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는 작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역의 풍경을 주목한 서술

溫庭筠은 일찍이 襄陽의 徐商 막하에 근무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강남을 유람한 것¹²⁾을 비롯하여 평생 동안 吳越, 西蜀, 塞北, 京洛, 荊襄江湘 등지를 전진한 바 있다. 자연을 찾아 유람을 한 경우보다는 인생역정에 따라 각지를 떠돌아다닌 경우가 많은 셈인데 이 경우에도 그는 자신이 목도한 향토적 서정을 시가창작에 연결하기를 좋아하였으니 이로 인해 그의 시가 중에는 타지의 풍광을 신선한 감각으로 표착한 행유시가 여러 수 존재하게 된다.¹³⁾ 이러한 행유시는 지역의 특성에 주목하거나 그 지역의 풍류를 즐기려 했던 그의 성벽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시가의 내면을 보면 溫庭筠이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체험한 각 지역의 풍경에 대하여 특별한 감동과 감수성을 발휘한 흔적이 발견된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작품들은 溫庭筠이 자연을 묘사한 시가 중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풍경을 주목하여 개성적인 묘사를 가하고 있는 작품들을 몇 수 예거하여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荊門으로 가는 길에 목도한 풍경을 樂府 舊題를 통해 담아낸 「常歡林歌」一首를 살펴보자.

「常歡林歌」(상림에서 부르는 즐거운 노래)

宜城酒熟花覆橋 의성에 술 익는데 꽃잎은 다리 위에 덮여 있고
 沙晴綠鴨鳴咬咬 모랫가 맑은데 푸른 오리 떼 시끄럽다
 濃桑繞舍麥如尾 뽕나무는 집 근처 길게 들렀는데 보리 싹이 보이고
 幽軋鳴機雙燕巢 나직이 베 짜는 소리와 쌍으로 둥지에 깃드는 제비
 馬聲特特荊門道 형문으로 가는 길에 말울음 소리 들려오고

12) 辛文房, 『唐才子傳』卷8 「溫庭筠」: “徐商鎮襄陽, 辟巡官, 不得志, 游江東.”

13)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로는 「錦城曲」, 「常歡林歌」, 「吳苑行」, 「錢塘曲」, 「燒歌」 등의 樂府詩가 있어 題名을 통해 향토적 색채를 가늠해볼 수 있으며 「利州南渡」, 「回中作」, 「開聖寺」, 「盤石寺留別成公」, 「送盧處士游吳越」 등의 七律詩를 통해서도 溫庭筠이 지역과 연관된 서정을 시가에 담기를 즐겨했음을 알릴 수 있다.

蠻水揚光色如草 만수에 햇살 비추어 풀처럼 푸르르다
 錦荐金爐夢正長 연인들은 비단자리에서 향기로운 꿈 꾸고 있는데
 東家唧唧鳴鷄早 이른 아침 동쪽 집에서 들려오는 꼬끼오 닭 우는 소리

봄날 새벽 荊門을 지나가는 길에 본 시골의 순박한 풍경을 明朗한 필치로 그려냈다. 꽃잎이 깔린 다리, 강가 모랫벌과 민가 주위를 드나드는 새들의 형상, 농작물이 성장하는 모습과 백성들의 생활상 등을 순차적으로 묘사했는데 근경과 원경의 교차, 시각과 청각의 조화, 각종 색채감의 활용, 실경과 허경의 서사 등의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기술함으로써 농가의 풍경을 한아하고도 청려하게 묘사한 점이 특히 뛰어나다. 일정 지역을 그림에 있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하면서도 활기찬 내용을 이입시켜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잘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장점이라 하겠다.

다음은 溫庭筠이 吳越로 유람을 가는 친구를 송별하며 쓴 작품인데 吳越 지역에 대한 설명을 가미하여 정취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送盧處士游吳越』(노처사가 오월로 유람가는 것을 전송하며)
 羨君東去見殘梅 그대가 동쪽으로 가 지지 않은 매화를 구경하는 것 부러워
 唯有王孫獨未回 오로지 왕손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데
 吳苑夕陽明古堞 오나라 정원에 비치는 석양은 옛 성가퀴를 밝히고
 越宮春草上高臺 월나라 궁궐에 핀 봄풀은 높은 누대 위까지 솟아 있겠지
 波生野水雁初下 파도 이는 들녘 물에 기러기가 내려앉기 시작하고
 風滿驛樓潮欲來 바람 가득한 역루에는 조수가 몰려 올 것이다
 試逐漁舟看雪浪 시험 삼아 고깃배 쫓으며 눈 같이 흰 파도를 보면
 幾多江燕荇花開 강가에는 많은 제비 날고 마름풀도 그득 피어있으리

지기 盧處士¹⁴⁾가 吳越로 유람을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여행 기억을 떠올리며

14) 盧處士가 누구인지 이 시를 통해 알 길은 없으나 溫庭筠의 다른 작품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의 다른 시 『過盧處士山居』 시를 통해 盧處士가 盧處가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지은 작으로 추측된다.¹⁵⁾ 吳苑에 비치는 석양과 越宮에 솟아난 봄풀은 화려한 궁궐의 위세를 가늠하게 하며 세월의 흐름과 영욕의 변화를 느끼게도 한다. 吳越에 대한 溫庭筠의 기억과 느낌을 담고 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吳越 궁궐에 대한 묘사를 가한 전반부에 이어 후반에서는 吳越의 물가 풍경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 吳越의 지역적 특색을 서술하는데 있어 ‘水鄉’의 이미지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溫庭筠이 자연을 바라보고 기술하는데 있어 지역적 서정을 중시했던 작가였음을 또한 추측해볼 수 있겠다.

溫庭筠이 지역의 풍류를 만끽하며 자신의 감수성을 자연에 붙여 쓴 작품은 행유시 뿐 아니라 「燒歌」, 「會昌丙寅豐歲歌」 등 농촌정경을 기술한 작품, 변세의 풍경을 기록한 작품들에서도 일정 정도 발견된다. 일례로 「燒歌」 같은 시는 溫庭筠이 목도한 화전민의 삶과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여 쓴 것인데 이 시 중 산에 불을 놓는 모습을 기록한 부분을 절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燒歌」(밭에 붙은 농는 것을 보고)

起來望南山	아침에 일어나 남산을 보니
山火燒山田	산불이 이니 이는 산간의 밭을 태우는 것이라
微紅久如滅	희미한 붉은 빛 오랫동안 타며 사라질 듯하다가
短焰復相連	불꽃이 짧아졌다 다시금 이어지네
差差向巖石	크고 작은 불길 바위 쪽 향하다가
冉冉凌青碧	점차 이어져 푸른 바위를 타고 넘어가네
低隨回風盡	바람은 낮게 불어대고 있고
遠照檐茅赤	불길은 멀리 띠집의 처마까지 붉게 비추네
鄰翁能楚言	초당 방언에 능한 이웃 노인네

15) 溫庭筠은 吳中에 있을 때 春秋시대 吳國의 宮苑인 蘇州 吳苑의 봄 풍경을 소재로 강남의 지역적 특색을 가미한 작품 「吳苑行」을 지은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리따운 평들 쌍으로 나는데 매실은 맺어있고, 멀리까지 푸른 봄 창밖으로 펼쳐있네. 그림처럼 평온한 오강은 하늘과 맞닿아 있고, 세 자 병풍만한 시선 속에 천 리 밖 풍경 담겼어라. 작은 吳苑에는 붉은 사립문 서있고, 천연 실 같이 하늘거리는 나비들은 쌍쌍이 노닌다. 아름다운 집 화려한 기둥 오랫동안 변치 않고, 화사한 햇살 해마다 똑같이 비취지기를.(小苑有門紅扇開, 天絲舞蝶共徘徊. 綺戶雕楹長若此, 韶光歲歲如歸來. 錦雉雙飛梅結子, 平春遠綠窓中起. 吳江澹畫水連空, 三尺屏風隔千里.)” 이러한 작품을 통해 溫庭筠이 吳越 지역을 유람했고 蘇州 吳苑을 감상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倚插欲潯然	가래 삽에 기대어 눈물 흘리면서
自言楚越俗	혼자말로 하는 말 “이는 초땅과 월땅의 풍속인데
燒畬爲旱田	저 밭을 불태우면 한전이 될 것인데”라고 한다

이 시는 溫庭筠이 大中 10년 隋縣尉로 폼적되어갔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이다. 襄陽 일대의 농민들이 한지를 태워 밭을 개간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불길 이 타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묘사가 사실적이다. 산언덕에 성대하게 만연한 불길의 모습을 먼 초가집 처마에까지 붉게 비춘다고 표현한 것과 희미하게 꺼져가다가 다시 살아나 바위를 집어삼킬 듯 맹렬히 일어나는 모습을 차례로 그린 것들은 모두 실제적인 목도를 바탕으로 그려낸 묘사인 것이다. 한편 楚땅과 越땅의 농사풍속을 노래하면서 시인은 촌로의 입에서 나오는 독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고 있다. 끝없이 땅을 개간해야 하는 화전민의 고단한 삶은 마치 불처럼 한 순간 일어났다 다시 旱田으로 변하는 산등성이의 화전과 같이 한계를 안고 있는 삶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자연묘사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변새시를 빼놓을 수 없다. 溫庭筠이 변새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¹⁷⁾은 각 변새지역의 특색을 포착하여 자

16) 袁閻琨은 『全唐詩廣選新注集評』 제9권(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제24쪽에서 ‘燒畬’ 구절에 대해 “燒荒種田. 先放火燒去地面草木, 使灰燼成爲肥料, 然後掘地下種, 二三年後拋棄這塊地, 如法另燒一處.”라고 설명하면서 화전을 통해 산등성이를 태워 경작을 한 후 이삼년 후에 다시 이 밭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개간하는 풍속임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溫庭筠은 이 시의 결미에서 “그 누가 알았으리 저 푸른 밭에, 경작을 다하면 관가의 부세가 내려질 것을.(誰知蒼翠容, 盡作官家稅.)”라는 언급을 통해 결국 농민의 삶이 또 한 번 시름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17) 溫庭筠이 변새를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은 「西游抒懷」, 「回中作」, 「退水謠」, 「救勒歌塞北」, 「蘇武廟」, 「塞寒行」 등을 비롯하여 십 여수에 달한다. 이 작품들은 변새시의 창작전통에 따라 지어진 것이지만 이채로운 변새풍광의 면모를 부각시켜 신선한 표현을 진작시킨 작품으로써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일례로 「塞寒行」에서 “모래바람 누렇게 일자 기러기 시끄럽게 울며 나르고, 백룡퇴 아래 쪽 천 마리 군마 달려오네. 탁하고 거센 황하에 갈 같은 바람 불고, 흰구름 흩어진 뒤 하늘 더욱 높아라.(一點黃塵起雁喧, 白龍堆下千蹄馬, 河源怒濁風如刀, 剪斷朔雲天更高.)”라는 표현이나 「退水謠」에서 “천자의 군대 구월에 요수를 건너, 사막의 먼지를 말 달리며 기러기를 놀라게 하네. 살기 어린 허공 너머 만 리까지 정을 실어 보내고, 변새의 추위는 화살이 두 눈을 쏘는 듯해라. 봉화대 위에는 눈이 질펀히 쌓이고, 고엽에 바람 부니 천지가 온통 말랐구나.(天兵九月渡遼水, 馬踏沙塵驚雁起. 殺氣空高萬里情, 塞寒如箭雙眸子. 狼烟堡上霜漫漫, 枯葉號風天地乾.)”라고 표현한 것은 변새 자연을 들

연묘사 속에 선명하게 재현시켜낸 점이 특징이다. 그 중 回中 일대의 모습과 변세의 성루를 주된 소재로 하여 북방 변세의 모습을 그려낸 다음 작품을 한 수 예거하여 살펴본다.

「回中作」(회중에서 지음)

蒼莽寒空遠色愁 창망하게 차가운 하늘 멀리까지 근심스럽게 펼쳐 있는
 데
 鳴鳴戍角上高樓 우우하는 수자리 나팔소리 고루에서 들려오네
 吳姬怨思吹雙管 오땅 아가씨 그리운 마음을 담아 쌍피리를 불고
 燕客悲歌別五侯 연땅 객의 슬픈 노래로 귀족들을 송별하네
 千里關山邊草暮 천 리 관산 변세에는 풀도 시들어가고
 一星烽火湖雲秋 별처럼 빛나는 봉화에 북방 구름에 가을이 인다
 夜來霜重西風起 밤 되니 서리 질어져 서북풍 일고
 隴水無聲凍不流 용수는 소리 없으니 얼어서 흐르지 않음이라

황량하게 펼쳐진 邊塞에 외롭게 서 있는 성루의 모습과 戍角聲을 수연에서 언급함으로써 사실감과 긴장감을 이입한 것은 여느 변세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전반부를 보면 시인은 ‘우우(鳴鳴)’하는 ‘戍角聲’을 비롯하여 ‘쌍피리(吹雙管)’와 ‘悲歌’ 등의 선율을 통해 변세의 고적함을 고조시켰고 이어 후반부에서는 정경 묘사를 통해 변세의 이채로운 풍광을 新奇하게 그려낸 것이 발견된다. 변방의 풀이 시들어가며 색이 바래는 모습을 ‘草暮’, 황량한 자연 속에서 오롯이 떠오르는 봉화를 ‘一星烽火’, 얼어서 흐르지 않는 隴水를 ‘無聲’이라고 각각 표현하면서 정경을 효율적으로 묘사한 것이 이채롭다. 樂府, 吳歌와 序曲 등 음률에 정통했던 시인이었고 각지의 특징을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잘 포착한 시인이었기에 이와 같이 자연묘사에 선율을 이입하거나 신기한 묘사를 가한 시를 창작해 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溫庭筠이 여러 지방을 다니며 그 지역의 풍광을 주제로 자연을 묘사한 작품은 그가 자연을 그림에 있어 실제적인 체험을 전제로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자연 가경을 찾아 아름다운 감회를 기록한 작품의 경우 종종 遠景과 虛景의 구도나 화

어 자연묘사에 대한 신선한 표현을 시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한 색채감, 절묘한 수사기교를 지향한 흔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의 풍광을 묘사한 작품은 實景과 近景을 주목하는 실제적인 묘사를 통해 주로 사실성 넘치는 묘사를 가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시가들은 이채로운 지역의 모습에 대해 세미한 관찰력을 발휘한 작품이 대부분이므로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겠다.

3. 수려한 시어 활용을 통한 우미한 정경묘사

溫庭筠이 자연을 묘사한 작품을 보면 주로 羈旅의 신세로 있으면서 감정을 서사하거나 자신만의 번뇌를 씻고 청정한 정신세계를 지향하려 했던 동기에서 창작된 것이 많다. 자연이 주는 치유의 경지와 청신한 의경을 갈구했기에 격조가 청아하고 의경이 맑은 작품을 다수 창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溫庭筠이 자연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소박한 필법을 추구하면서도 빼어난 수사기교를 발휘하여 화사한 자연미를 창출한 부분도 곳곳에 있음이 종종 발견된다. 葉正시의 ‘綺靡’와는 다른 느낌의 기려한 필치를 부가하여 정경을 수려하게 표현하기도 하였고 이채로운 구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신선한 감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창작수법 역시 溫庭筠 자연시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개성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연관하여 다리 위에서 비를 만난 평범한 상황에다 상큼한 필치를 가해 정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고 있는 다음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咸陽值雨」(함양에서 비를 만나다)

咸陽橋上雨如懸 함양 다리 위에 내리는 비 마치 하늘에 걸린 듯
萬點空夢隔釣船 만 점 빗방울 허공의 꿈같아 저 너머 낚싯배 보일 듯
말듯
還似洞庭春水色 흡사 동정호의 봄물 색깔과도 같아
曉雲將入岳陽天 새벽 구름 악양의 하늘에 깔리려 하나니

渭水가 흐르는 함양교에서 봄비를 맞으며 쓴 작품으로 봄비에 대해 ‘비가 마치 하늘에 걸린 듯(雨如懸)’하고 ‘허공의 꿈같다(空夢)’고 하며 한 묘사가 수려하다.

빛방울이 마치 구슬처럼 하늘에 걸려 있고 그득한 비로 인해 보일 듯 말 듯 펼쳐진 몽롱한 정경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북방의 정경을 보면서 먼 남방의 동정호와 岳陽의 새벽풍경을 떠올린다. 함양다리에서 바라보는 '雨景'이 기억 속에 남아있던 동정호의 아름다움을 연상하게 만든다. 허경과 실경, 현실과 연상의 묘사 수법 등을 적절히 발휘하면서 미려한 필치를 통해 자연의미를 더욱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分水嶺을 지나면서 자신의 흥취와 산천의 절경을 절묘하게 묘사한 다음 작품에서도 시가에 나타난 구상이 기이하고 독특한 면모를 지녔음을 살필 수 있다.

『過分水嶺』(분수령을 지나며)

溪水無情似有情 무정한 시냇물 마치 정이 있는 듯
 入山三日得同行 산중에서 삼일 동안 나와 동행하였다네
 嶺頭便是分頭處 고개 마루 갈 길 갈라지는 곳
 惜別潺湲一夜聲 헤어지기 섭섭한 듯 밤새 줄줄 소리 내며 흐르네

시냇물을 의인화하여 묘사하였는데 내면을 살펴보면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과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신의 산행길은 반대방향이지만 “동행하였다(得同行)”라는 표현을 가한 것은 일종의 ‘낮설게 하기’에 해당하는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와 헤어지기 섭섭하여 밤새 소리 내며 흐른다(惜別潺湲一夜聲)”라고 표현한 것 역시 시냇물에 대한 애정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이채롭게 표현한 대목이 된다. 자연에 대해 지닌 신선한 감각을 다채롭게 표현하고자 한 작자의 노력과 흥취가 느껴진다.

다음은 쉽게 잠이 오지 않는 한 밤에 주변을 바라보며 지은 작으로 환상적이고 유미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이다.

『瑤瑟怨』(요슬원)

冰簟銀床夢不成 잠 오지 않는 은침상 싸늘한 대방석에 누웠는데
 碧天如水夜雲輕 하늘엔 파란 물, 밤 구름은 경쾌히 흘러가네
 雁聲遠過瀟湘去 기러기 울음소리 소상강으로 멀어지고

十二樓中月自明 열 두 누각에는 달빛만 밝게 비추는구나

남방 어느 곳에서 바라보는 자연을 그림에 있어 아황과 여영의 고사를 이입하고 함축적인 표현을 가함으로써 몽환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무언가 시름에 잠긴 시인이 은침상에 누워 바라보는 하늘을 그린 제2구를 보면 푸른 하늘과 은하수, 시름에 잠겨 잠 못 이루는 시인의 마음과 달리 경쾌하게 흘러가는 밤 구름 등의 절묘한 대비가 실려 있다. 瀟湘江에 슬피 울며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제4구에서 선경 '十二樓'¹⁸⁾를 떠올린 수법 또한 상상과 허구, 현실의 정경과 이상의 세계를 절묘하게 혼합한 묘사라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하나의 잘 짜여진 구도 속에 기묘한 표현들을 이입하여 넣은 것처럼 신선한 구상과 시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利州南渡』(이주에서 남쪽으로 건너며)

澹然空水帶斜暉 맑고 광활한 물은 석양 빛 머금었고
 曲島蒼茫接翠微 굽이굽이 둘러선 섬들의 푸른 모습 점차 희미해진다
 波上馬嘶看棹去 물가엔 말울음 소리와 노 저어가는 것 보이고
 柳邊人歇待船歸 버들 가에 쉬는 사람들 배로 돌아오기 기다린다
 數叢沙草群鷗散 몇몇 모래 무더기 풀에서는 갈매기 떼 흩어져 날고
 萬頃江田一鷺飛 만경 강가 밭 위로 백로 한 마리 날아간다
 誰解乘舟尋范蠡 그 누가 알리 성공한 뒤 배로 떠난 범려를 찾는 심정
 五湖烟水獨忘機 오호의 연무 낀 물 보며 홀로 기심을 잊노라

수연에서 강가의 근경과 원경을 그렸고 함연에서는 사람의 모습, 경연에서는 강가 새들의 모습 등을 차례로 그렸다. 전체를 조망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특정 자연물을 주목하여 보는 식으로 점층적인 묘사를 가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세 연을 통해 강가 주변경치를 그리면서 '澹然', '斜暉', '曲島', '波上', '柳邊' 등 각 구절마다 기묘하면서도 청신한 표현을 가하고 있음도 돋보인다. 특히 수연에서 강물에 비끼는 햇살과 푸른빛 이어가다 점차 그 푸른색이 희미

18) 司馬遷, 『史記』「孝武本紀」에 나오는 “爲五城十二樓”라는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仙人이 거주하는 崑崙玄圃에 五城 十二樓가 있다는 설을 활용한 것이다.

해지는 구불구불한 섬들의 모습을 그린 부분은 절묘한 미감을 느끼게 한다. 경연에서 ‘萬頃’과 ‘一鷺’를 통해 광활한 중에 고독하고도 청아한 의상을 창출한 것 역시 빼어난 필법을 보이는 부분이다. 기심을 잊기 위해 스스로 담담한 모습으로 자문하고 있으나 ‘홀로 잊는다(獨忘)’는 표현을 통해 외로운 심정의 일단을 투영하고 있음도 살필 수 있겠다.

살펴본 몇몇 시가들은 청순한 자연묘사 속에 기려한 수사기교가 스쳐가듯 발휘된 작품의 예들이다. 또한 첩자와 대비의 수법을 적절히 활용한 표현을 하거나¹⁹⁾ 이슬을 영롱한 미인에 비유하며 화려하게 표현하는 등²⁰⁾ 자연계의 다양한 소재에 대해 유미적 시각으로 미감을 높인 경우도 여러 곳을 통해 살필 수 있다.²¹⁾ 이처럼 자연 묘사를 함에 있어 溫庭筠이 수려한 기교를 발휘한 부분은 찬란한 자연미와 시인의 기교적 감각을 함께 살린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吳歌와 西曲, 梁陳宮體의 영향을 받은 바 있는 시인이었기에 자연 정경에 대해 白描의 표현으로 순박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기는 했어도 풍부한 수사기교와 섬농한 표현에 능했던 그의 재능은 어느새 수식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든 것이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며 이 또한 그의 자연시를 특징짓는 일면이라 하겠다.

-
- 19) “아침에 성 남쪽에서 어망을 던지고, 저물녘 성 서쪽에서 어망을 던지네. 양쪽 풀 속에선 나직이 우는 소리 나는데, 연잎은 서로 고저를 이루고 있구나.(朝罩罩城南, 暮罩罩城西. 兩漿鳴幽幽, 蓮子相高低.)”(「罩魚歌」) 구절에서 첩자를 활용하면서 내용상 대비를 도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20) “연꽃 꽃술에 맺힌 이슬 마치 여주같구나.(荷心有露似驪珠)”(「蓮蒲謠」), “무겁게 이슬 맺힌 꽃 향은 사라지지 않았어라.(露重花多香不銷)”(「張靜婉采蓮曲」), “하늘의 이슬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옷에서 향이 묻어나네.(天露未乾香着衣)”(「郭處士擊歐歌」) “궁궐의 꽃에 이슬 있어 마치 새로이 눈물을 흘리는 듯(宮花有露如新淚)”(「曉仙謠」) 등의 표현은 모두 이슬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기려하게 표현한 예가 된다.
- 21) 張自華는 「溫庭筠詩歌研究」(廣西師範大學 박사논문, 2011. 4.) 제4장 ‘溫庭筠詩歌的藝術特徵’에서 “自然界的風、雨、雲、月、露, 在庭筠的精心描繪下, 升華爲一種唯美的意象群, 自然美升華爲一種藝術美. 這體現了作者的審美創作理念, 是詩人唯美的藝術理想在詩中的體現.”이라 하여 溫庭筠이 하나의 자연물을 유미적 시각으로 관조하며 기술해낸 부분을 고찰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4. 청아한 자연 묘사 속에 발휘한 자연회귀 의식

溫庭筠은 재주가 뛰어난데다 유미적인 시각이 남다른 인물이었고 자신만의 흥취도 갖고 살아간 인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晚唐의 쇠퇴기를 살아가는 일인으로서 관도가 불운하여 외지를 전전했고 수심과 고뇌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일생을 살아간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다른 여러 문인들처럼 溫庭筠 역시 세사에서 얻은 고뇌를 자연산수에 대한 묘사와 그 속에서의 해탈을 도모하는 것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수의 작품을 남기게 된다.²²⁾ 산수에 대한 사랑과 佳境을 찾음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 해탈은 고뇌를 투영한 자연시보다도 더욱 閑雅한 풍격을 띠게 된다. 은거에 대한 욕망 표현이나 교외나 심산유곡에서 한거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에는 백묘적 수법을 활용한 부분이 많으며 작품의 내면을 보면 은거하며 사물을 살피는 중에 얻은 깨달음이나 선취를 투영한 면모도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점과 연계하여 溫庭筠의 자연시 중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시심에다 소박한 언어와 심미적 흥취를 담아 소요의 경지를 추구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벼운 필치로 은거의 흥취와 현실참여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노래한 다음 시를 살펴보자. 한거를 향한 그의 욕망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地肺山春日』(지폐산의 봄날)

冉冉花明岸	꽃은 온화하게 피었고
涓涓水繞山	물은 느릿하게 산을 돌아 나간다
幾時拋俗事	나는 언제나 세속의 일을 벗어나
來共白雲間	자연과 함께 흰 구름 사이에서 노닐까?

22) 溫庭筠의 시가 중 「酬友人」, 「秋日」, 「鄂杜郊居」, 「早秋山居」, 「南湖」 등의 시는 세상에서의 피곤함을 뒤로 한 한거의 흥취를 찬양하거나 은거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는 작이다. 특히 그가 長安 서남쪽 鄂杜에서 한거한 기간에 쓴 「鄂杜郊居」, 「書懷百韻」, 「鄂郊別墅寄所知」, 「題城南杜那公林亭」, 「郊居秋日有懷一二知己」, 「馬鬼騷」, 「梯望苑騷」, 「經五丈原」, 「咸陽值雨」, 「題端正樹」, 「渭上題三首」, 「登盧氏臺」, 「龍尾繹婦人圖」, 「二月十五日櫻桃盛開自所居蹂履吟玩寄王澤章洋刁」, 「京兆公池上作」 등의 십 여수 작품은 한거하는 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을 드러낸 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地肺山에 한아하게 피어있는 꽃과 물을 통해 자신의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溫庭筠은 『高士傳』에서 옛날 노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은거했다는 기록²³⁾을 떠올리며 자신의 신세와 비교를 가하고 있다. 눈앞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하고 있지만 관직의 불운, 은거를 갈망하는 마음, 세속을 절연하지 못하는 입장 등 여러 모순된 상황이 주는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표현은 평이하되 심정은 심오한 괴리상태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溫庭筠이 실제로 한거하며 지은 다음과 같은 시를 보면 그가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깨달음으로 충만하여져 있음을 살필 수 있다.

「早秋山居」(초가을 산에 기거하며)

山近覺寒早	산을 가까이 하니 추위가 일찍 왔음을 느끼는데
草堂霜氣晴	초당에 산 기운은 맑기만 하구나
樹凋窓有日	나무 시들어 있는 창가에 햇빛 들고
池滿水無聲	못에 물 가득하니 물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果落見猿過	산 열매 떨어지니 원숭이 지나갔음을 알겠고
葉幹聞鹿行	나뭇잎 다 말라 사슴 다니는 소리 들리네
素琴機慮靜	거문고를 타니 온갖 잡생각 고요해지고
空伴夜泉清	부질없이 밤 샘물의 맑은 소리와 벗하네

산속에서 기거하며 일찍 찾아드는 가을의 신선한 기분을 만끽하는 시인의 한아한 정서가 느껴진다. 초당 주변의 산 기운이 맑게 갠 모습은 자연을 찾아 탐닉하는 시인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다. 한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창에 해를 가려주었던 나무였건만 이제 그 잎이 시들어 가니 듣성듣성해진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물이 가득해진 연못이라 물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산의 열매가 떨어지는 흔적으로 원숭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알게 되고 낙엽이 바짝 말라 있어 사슴 다니는 소리도 또렷이 들려온다. 이 모두는 분주한 시각으로 살펴보았으면 느끼지 못했을 가을의 성숙한 경지이니 자연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터득한 시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23) 地肺山은 섬서성 商縣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高士傳』에 “진시황 때 四皓(東園公, 角里先生, 綺里季, 夏黃公 등 네 명의 노인)가 商과 洛 지역에서 이곳에 함께 들어와 은거했다.(秦始皇時, 四皓共入商, 洛, 隱地肺山.)”라는 기록에 등장하는 곳이다.

부분도 된다. 가을의 정취에 취한 시인은 감흥을 이어가며 줄 없는 거문고를 만져 본다. 이 순간 마음 속 온갖 잡생각과 세상의 번뇌는 청정한 샘물에 씻겨가듯 사라지니 시인은 어느덧 산뜻하고 텅 빈 경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은거하는 처사의 모습을 그린 다음 작품에서는 한거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흥취를 배가한 면모도 발견된다.

『處士盧岵山居』(처사 노호의 산 중 거처)

西溪問樵客	서쪽 개울가에서 나무꾼에게 처사의 거처 물으니
遙識主人家	저 멀리 주인집 가리킨다
古樹老連石	고목은 오래된 돌들 밑으로 연이어져 있고
急泉清露沙	급히 흐르는 샘물 맑아서 모래가 다 드러나네
千峰隨雨暗	천 개의 봉우리에 비 내리자 날 어두워지고
一徑入雲斜	길은 구름 속으로 굽이쳐 들어간다
日暮鳥飛散	해 저물자 새들도 흩어져 나는데
滿山蕎麥花	온 산에는 메밀꽃이 가득

처사 盧岵가 사는 곳은 고목과 옛 돌들이 이어져 있는 고즈넉한 곳으로 물이 맑아 모래가 투명하게 보이는 경치를 자랑한다. 고아하고 청아한 운치를 지닌 곳에 기거한다는 표현을 통해 ‘山居’하는 처사의 내면을 은유하였다. 삶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주변 자연을 들어 처사의 고아한 의식을 표현해낸 수법이 돋보이는 것이다. 미연에서는 해 저물자 각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새들의 모습을 통해 한적한 경지를 그리면서 흰 메밀꽃을 들어 생활과 연계된 정경의 아름다움을 거론하고 있다. 정경묘사 속에 인간의 정취를 투영하고자 노력한 것이 발견된다. 산촌에서 기거하는 삶의 일단을 농가의 풍경처럼 잘 환유하였고 은자를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은자의 청빈한 삶과 표일한 경지를 효율적으로 그려낸 것이 돋보인다.

溫庭筠은 정신적 안위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을 찾으려 하면서 한편으로 불승들과의 교유나 불학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연묘사에 이입시키기도 하였다. 세사나 인생역정과 연계된 자신의 우수를 기탁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자연시와 함께 禪趣의

추구를 통해 해탈의 경지를 추구한 시기는 그의 자연시 창작에 있어 또 하나의 방향성으로 작용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고민하며 마음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중국에는 선취나 이치가 주는 깨달음에 따라 인생을 관조하게 되는 과정은 여타 시인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溫庭筠이 선취와 연관하여 자연묘사를 가한 작품들²⁴⁾ 중 한밤중에 산사에 머무는 흥취를 그린 시가를 한 편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月中宿雲居寺上方』(달빛 비치는 중 운거사 선방에 기거하며)

虛閣披衣坐	허정한 누각에 옷 걸치고 앉았다가
寒階踏葉行	차가운 섬돌에 걸린 나뭇잎 밟고 지나가네
衆星中夜少	못 별들은 한 밤이라 많이 사라졌고
圓月上方明	둥근 달만이 사방을 밝게 비춘다
靄盡無林色	아지랑이 다 해도 숲의 모습 보이지 않고
喧餘有澗聲	시끄러운 것은 다만 시냇물 소리만이 남아있다
只因愁恨事	그저 근심으로 인해 세상사 한하다가
還逐曉光生	마침내 새벽빛이 생겨남을 보게 되었나니

적막한 밤 중 달빛만이 사방을 비추는 고요한 경지에 둘러싸인 작자는 홀로 산사 주변을 떠돌며 각종 시름을 날려 보내고자 노력한다. 캄캄한 한 밤의 모습 속에 별도 드물어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들도 사라졌으며 숲의 아지랑이도 다하고 자연의 소리만이 내 귀에 들려오나 시인은 좀처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구에서 ‘새벽빛(曉光)’이 비치게 되자 내 마음이 밝아지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는 마치 오랜 구도의 생을 추구하다 얻은 한 줄기 깨달음처럼 시인의 마음을 밝혀주는 존재와도 같다. 허정한 마음을 얻으려 자연을 찾아 노력하는 시인의 고민과 해탈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溫庭筠이 전원의 낙을 노래하거나 자연 미경을 찬양한 작품들은 한적한 서정을

24) 溫庭筠은 불도에 귀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선사나 고승들과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은 바가 많았다. 선취를 이입하여 쓴 작품에는 「題僧泰恭院二首」, 「月中宿雲居寺上方」, 「宿衛公精舍」, 「寄清涼寺僧」, 「題陳處士幽居」, 「寄山中人」, 「和友人盤石寺逢舊友」, 「贈張煉師」, 「題造微禪師院」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는 淡寂한 필치와 투명한 의상으로 자연묘사를 이룬 부분이 많이 담겨 있다.

표출하거나 광달한 경지에 올라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은일서정을 지향하거나 자연 속에서 기거하며 해탈을 도모한 자연시는 표현수법상 대부분 백묘적이면서 담박한 필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회한과 수심을 자연 속에 풀어버리거나 한거를 통해 마음을 비운 결과에 따른 것이며 내면적으로 청정하고 심오한 경지를 도모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선취는 허정한 경지에 들어가 자아를 찾는데 있어 깊은 사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우수와 번뇌를 잊기 위해 자연을 찾다가 결국 자신의 투명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은 자연시 창작의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거를 통해 소욕을 배제하거나 자신의 시가에 禪意와 禪趣, 眞如의 허정한 정신세계를 추구한 작품 속의 자연묘사는 '空山', '清泉', '白雲', '空寂'과 같은 담백하고 한아한 소재가 좀 더 깊이 있는 의경으로 창출되게 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하겠다.

Ⅲ. 결론

溫庭筠은 제세의 포부는 갖고 있었지만 평생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자신만의 한과 비극적 감성을 안고 살았던 시인이었다. 높은 관직이나 순탄한 행로에 올라보지 못한 처지를 풍류를 즐기는 것이나 기려한 시풍과 연관된 艷詞의 창작을 통해 풀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시류나 유파에 합류하기보다는 개성을 간직한 채 고적한 정회를 펼치며 살았던 이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지에서 나온 그의 자연시는 제재가 광범위하고 내용의 변화가 다양하다는 특색을 갖는다. 자신의 신세의식을 투영하면서도 다채로운 경물을 통해 다양한 심정을 묘사하거나 독특한 필법으로 새로운 미감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유려한 필치로 청신하고 아름다운 가경을 돋보이게 수식하는 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또한 승려들과의 교유나 은거의 낙을 찬미한 시들을 통해 염려한 시어를 배제하면서 '淸冷'하면서도 '幽靜'한 무채색의 허정한 풍격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溫庭筠의 자연시는 그의 다른 시가 추구했던 유려한 필치와는 구별되는 소박한

서사를 주로 지향하고 있다. 이는 그가 시가 창작을 통해 이채로운 표현과 구상을 추구하고 함축적인 매력을 발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아하고 한적한 흥취도 숭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詩歌史 전반적으로 볼 때 溫庭筠은 陶謝와 王孟韋柳 같은 전대 자연시파 시인들만큼 시가 창작을 통하여 閑雅한 의경이나 自得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陶謝와 王孟韋柳 같은 역대 자연시인들의 작품이 시가의 정제된 균형미를 통해 자연에 대한 미감을 차분하게 발휘하고 있는데 비해 溫庭筠이 시가에서 가한 자연묘사는 소산한 의경을 표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다소 비대칭적인 자연묘사의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詞, 音律, 艷情, 歌舞 등 溫庭筠의 주변을 채우고 있었던 다양한 정서는 그가 자연시의 창작에 주력하기에는 한계성을 갖게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79.
 歐陽脩,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辛文房, 『唐才子傳』,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8.
 傅璇琮,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0. 2.
 許 總, 『唐詩史』(上·下),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5. 3.
 章尙正, 『中國山水文學研究』, 北京: 學林出版社, 1997. 9.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1.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上·中·下),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5.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제5권.
 譚 蔚, 『中國古代山水田園詩賞析』,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6. 11.
 高 棅, 『唐詩品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9.
 張自華, 「溫庭筠詩歌研究」, 廣西師範大學 박사논문, 2011. 4.
 唐愛霞, 「飛卿亦有清詩句—溫庭筠山水田園詩的清拔曠遠之美」, 電子科技大學報, 2009. 11권.

〈中文提要〉

溫庭筠自然詩的特徵分析

溫庭筠(812?-866)是晚唐之一位重要詩人,以首創花間派詞在唐代詞發展過程中做出了重要貢獻。他的詩的風格是根據題材、內容的不同而變化的。面對自然界的風光山水、田園景物時,他最常用的是清、閑、涼這些形容詞,用的意象多是山水中事物,從意境風格上來說,這些自然詩大都意境清幽,格韻清拔。溫庭筠自然詩從內容來看,顯然異乎其他挹情詩詞風格。本篇論文著眼於上記的內容,在主要四個方向下分析了溫庭筠自然詩的特點和意義。

第一,當溫庭筠身在世途中時,他往往既拋不下俗事,又對自然之美充滿嚮往。但溫庭筠的心思里常存著世途之追求與鄉野自然之美不可兼得的煩惱,而斯情種種表現在他的自然詩中,可以斟酌他在自然中所希求的逍遙境界。

第二,溫庭筠曾經寓居過長安鄂縣郊外別墅,除此之外,還遊歷了吳越、西蜀、塞北、京洛、荊襄、江湘,而且還可以把溫庭筠的出塞和游幕生活也可以視作羈旅的一部分。他的許多詩歌紀游寫景,既有所遊之地的風景風情的描繪,也含有著溫庭筠自然詩歌的個性特徵。

第三,溫庭筠自然詩的最大特徵是種種發揮秀麗清新的修辭技巧。溫庭筠以綺靡風格得名,雖然‘綺靡’只不過是溫詩風格的一面,但他的自然詩中有時發揮的流麗工巧的修辭技巧能附與新鮮活潑而生氣勃發的氣韻。

第四,溫庭筠寫下了表現閑居生活或者叙寫閑居指向的許多詩篇。這種詩篇都是溫庭筠遠離塵俗世事,遠離紛擾的世事之後所創作,表現了溫庭筠悠閑和靜心時候的一種思想和情懷。

關鍵詞: 溫庭筠, 自然詩, 山水詩, 山水田園詩, 晚唐, 清澹

이 논문은 2014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11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11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